

보호무역 강화...FTA 재협상시 수출 치명타

‘트럼프 쇼크’ 한국경제 파장은

IT·가전·자동차 직격탄 우려...美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자유무역·노동시장 유연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폭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불확실성이 증대돼 한국경제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쏟아질 경우 자유무역,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존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영향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금융시장 부정적 충격 불가피...공약사항 수사에 그칠 수도”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얘기해왔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에서의 레토릭으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FTA가 새롭게 논의되면 한미 모두에

부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공약사항들은 선거 때 수사로만 그칠 수도 있다.

또 강한 보호무역주의가 궁극적으로 미국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타협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논의 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정적 충격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 한국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FED와 행정부 간 갈등이 금융시장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되었지만 수출 영향은 제한적”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승리했지만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말해왔고 그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지만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완전히 뒤집는 정책을 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상호 간에 발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며 공약과 실제 집행하는 정책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패 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약간의 요동이 있을 수 있으며 만에 하나 한미 FTA가 번복이 된다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질서 변화...주가 폭락·달러화 약세 가능성”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스스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의 10배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수긍하는 입장이다.

세계질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봤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세계 경제 질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시장 반응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 트럼프는 어디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 폭락이나 달러화의 일시적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8.38 (-45.00) ↓ 금리 (국고채 3년) 1.40% (-0.02)

↓ 코스닥 599.74 (-24.45) ↑ 환율 (USD) 1149.50원 (+14.50)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할 듯

금호타이어 예비입찰 불참...1조원대 자금조달 관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후 마감된 금호타이어의 예비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우선으로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를 박 회장이 수용하면, 입찰 과정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먼저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난해 7천228억 원의 가격에 금호산업을 인수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까지 인수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룹 차원에서 금호타이어의 매각 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입찰 과정을 지켜본 뒤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산업에 이어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아 그룹 재건을 완성하겠다는 박 회장의 의지도 강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예비입찰에 상당수 응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찰에 응한 기업으로는 독일의 콘티넨탈AG, 일본 요코하마타이어, 인도 아폴로타이어, 중국 쉼치아나 등과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주택경기 ‘한파 주의보’

광주 실사지수 56.8...대출제한 부동산 대책 영향

가을 성수기가 끝나고 11·3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느끼는 주택경기가 냉랭하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3.2로 지난달(88.1)보다 14.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제값 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치 100을 넘어서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지역별 HB·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93으로 전월(120.5)보다 27.5포인트 떨어졌다. 90선을 유지한 건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수도권(86.8), 부산(84.9), 제주(86)는 80선을 상회했다. 지방은 전월보다 16.5포인트 하락한 평균 65.5를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은 경우 50~60선에 머물고 있어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광역시 중 대구(55.8%)·광주(56.8%)·울산(66.7%)의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획 전망치는 88.4로 지난달 전망치(107.7)보다 19.3포인트 하락했다. 9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재개발 86.4, 재건축 90.1, 공공택지 91.6으로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상의, 24일 결원 의원 보궐선거

광주상공회의소는 결원 의원 5인을 선출하기 위한 제22대 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24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전체 의원 80인 가운데 합병이나 폐업 등으로 결원 중인 5개사가 대상이다.

의원 후보 출마 자격은 최근 3년간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한 업체 대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

고, 마감회비는 10일까지 선거일 이전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제22대 상공회의소가 80인의 의원으로 출범했으니 합병 또는 폐업으로 결원이 발생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호남권 내년 토지보상금 5597억원

전국 87개 사업지구 17조5775억원...현 정부 최대 규모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6개 사업지구에서 5597억원 등 내년에 전국적으로 19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인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부동산개발정보 제공업체인 지존(www.gzonei.com)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87개 사업지구에서 총 17조5775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보상 예산은 제외된 금액으로, 매년 시행되는 SOC 사업의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7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내년에 풀리는 전체 보상금은 1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4년 토지보상금 14조7073억원이 풀린 이후 최대 규모다.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97.2㎢로 여의도 면적(8.4㎢)

의 11.5배에 이른다.

수도권에는 전국에 풀릴 토지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9조995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 시행하는 제2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구역이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LH공사가 내년 하반기 협의의 보상을 개시하는 등 수도권에서 36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에서는 6개 사업지구에서 5597억원, 강원권에서는 3개 사업지구에서 281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는 2007년 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 이후 10년 만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65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내년 3월경부터 이뤄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도 어린이들 “꿈을 그렸어요” 지난 8일 인도 어린이날을 맞이해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실시한 ‘나의 장래희망 그리기’ 행사에서 결연아동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현)은 인도 뉴델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속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 223-5506

구도청! ●충정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어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벽이스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한국방수연구소 연구원 고사 제2009-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단열시공 및 방수성능시험 결과 우수 판정됨) (방수성능시험 결과 우수 판정됨)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실효를 띠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정성 합격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인이 난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